

□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11월 5일 사학연구금회관 회의실에서 김신복 위원장(서울대 교무처장)을 비롯한 대학, 교육부, 대교협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9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중 변경 내용 및 '99학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불가, 경고, 권장, 인정 등으로 판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하였다.

□ 한·중·일 고등교육 국제 세미나 참석

한·중·일 3개국의 고등교육의 협력을 위한 제2차 한·중·일 고등교육 국제세미나가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한국측은 현승일 대교협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총장단이 참석하였으며, '21세기를 위한 극동아시아 3국의 고등교육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여 '극동아시아 3국의 고등교육 협력', '고등교육과 산업체와의 유대 강화', '유교사상과 대학생 가치교육'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대교협은 10월 30일 전국 113개 대학(국·공립대학 17개교, 사립대학 73개교, 교육대학 7개교, 산업대학 16개교)의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분석·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교육부 대학입학제

도 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8일 동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0월 15일 확정된 바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실제 계획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1998년도 대학 종합평가 현지방문평가 실시

대교협은 10. 26~11. 7까지 1998년도 일반대학 종합평가의 현지방문 평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지 방문평가는 39개 대학에 9개반 총 54명의 평가위원이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대학별 서면 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에 대비한 평가위원 워크숍이 두 차례(1차:'98.10.12, 2차:'98.10.22) 개최되었다.

□ 『수능시험 성적정보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연구 결과 발표

대교협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경향과 매년 입시철마다 사설입시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위 지원배치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수험생, 대학 신입생, 학부모, 교사 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 1,422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 선택시에는 성적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전공선택시에는 수험생의 적성과 소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선택 후에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배치표의 예상 점수는 그것을 하위 10%의 점수라 가정했을 때 대교협이 대학으로부터 수합한 성적자료와 비교하여 평균 16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98학년도 대학생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

대교협이 운영 위탁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는 '98년도 대학생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11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였고, 활동지원금 총 7,000만 원을 11월 초 각 대학을 경유하여 선정 동아리에 전달하였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아리 대표 워크숍을 '98. 11. 13, 삼성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또한 지난 하계 방학중에 실시한 한국대학생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회를 '98. 10. 22, 충남대학교 산·학·연 교육연구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한편, 대학 사회봉사 관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1.27~28, 충남 유성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99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 발간 배포

대교협은 정확하고 종합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상호간 전형정보를 교환하여 대입 전형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학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11월 15일 발간하여 회원대학, 전국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 제8차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개최

대교협 평화통일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주 한림대 총장)는 1998년도 제2차 통일교육

대학총장세미나 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23일 대교협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교육 대학총장세미나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는 학술세미나로, 지난 9월 8일에는 "남북한 대학교육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제92차 이사회 개최

대교협은 10월 16일 대교협 회의실에서 제9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일반사업 추진결과, '99학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 및 진학정보 발간계획, 세미나사업 추진계획, 대학사회봉사 위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결원중인 임원을 보선하였으며,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입학원서 공동접수 추진 계획과 대입합격자 공동발표 추진계획(ARS 및 PC 통신을 통한 합격자 안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98학년도 신학계대학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1998년도 신학계 대학 종합평가 실시의 일환으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10월 23일 제1차 평가위원 워크숍을, 11월 12일에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신학계대학 종합평가의 현지방문평가는 11월 16일~11월 2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 '세계고등교육 학점 인정 및 학위인정' 세계총회에서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피선

'98. 9. 29~10. 2에 파리에서 '세계 고등교육 학점인정 및 학위인정' 세계총회가 열렸다. '92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세계총회에는 UNESC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88개국에서 2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아태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세계 대학간 학점교류와 인정, 인터넷에 의한 정보망 구축, 그리고 2005년까지의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1회 대학교육정책포럼 개최

대교협은 9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대학총장, 기획실(처)장, 관련 보직 교수 등 총 170여 명이 참여했다. 윤형원 충남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참여한 7명의 패널리스트들(함종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설훈 국회의원, 이대순 호남대 총장, 조선제 교육부 차관, 최송화 서울대 총장직무대리,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체로 연구중심대학의 개념 정립과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98후반기 국내 교류교수 회의 개최

대교협은 9월 25일 '98년도 하반기 국내교류 대학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교류근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대학교수 국내교류 사업은 대학간 학문교류 및 협력증진, 효율적 공동연구 수행, 산·학 협동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98년도 하반기 국내교류 대학교수는 10명(자연과학 2명, 인문사회과학 8명)이며 9월 1일부터 1년간 해당 교류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법률(안) 중 사립대학 관련 조항 수정 건의

대교협은 '98년 9월 4일자로 임법예고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안) 중 사립대학(학교법인) 관련조항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공비부담이 연간운영비의 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현행 세입회계상의 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관련 예고 항목(조목)중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3개 조문에 2001년 12월 31일 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영구적 조세감면 특례를 주도록 요청하였다.